

‘2026 한복상점’, 광장시장의 한복 제작 문화 조망부터 기업 상담, 판매, 체험까지

- 8. 13.~16.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행사 개최, 기업 간 거래 사업상담회 첫 운영
- 149개 한복 기업 참여, 120년 역사 ‘광장시장 한복주단시장’ 기획관 등 마련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원장 김경배, 이하 공진원)과 함께 8월 13일(목)부터 16일(일)까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에서 국내 최대 규모 한복박람회인 ‘2026 한복상점’을 개최한다.

올해로 9회를 맞이한 ‘한복상점’에서는 총 149개 한복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한복을 짓는 시장’을 주제로 우리나라 대표 한복 원단 시장인 ‘광장시장 한복주단시장’ 기획관을 마련해 한복 산업과 문화를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처음으로 기업 간 거래(B2B) 사업상담회를 운영해 한복 기업의 국내외 판로 확대와 신규 거래 발굴을 지원한다.

광장시장 한복주단시장의 120년 역사와 한복 제작 문화를 한자리에서 조망

광장시장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케이-컬처’의 뿌리인 우리 전통문화를 체험하기 위해 찾는 대표 전통시장으로서, 120여 년 동안 우리나라 한복 제작과 유통의 중심 역할을 해왔다. 이번 기획관에서는 이러한 광장시장 한복주단시장의 역사와 한복 제작 문화를 한자리에서 소개한다. 원단 선택부터 금박, 자수, 바느질까지 한 벌의 한복이 완성되는 전 과정을 전시로 구현하고 광장시장에 있는 한복·직물업체 6개사의 판매 부스를 마련해 시장에서 판매하는 원단과 한복을 관람객들에게 직접 선보인다.

이를 통해 광장시장 한복주단시장이 지난 120년 동안 우리나라 한복 제작과 유통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해 온 역사와 가치를 살펴보고, 관람객들이 한복 한 벌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그 안에 담긴 장인의 손길과 기술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기업 간 거래 사업상담회 첫 운영, 한복 기업 판로 확대 지원 한복 상품 최대 80% 할인 판매와 전시, 체험도 함께 즐기는 ‘한복 문화축제’

올해 처음 운영하는 기업 간 거래 사업상담회에서는 국내외 유통사와 전문 구매자를 초청해 참가 기업과의 일대일 사업 상담을 진행하고, 유통 채널 입점과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을 모색한다. 단순한 제품 소개를 넘어 상담이 실제 유통·구매 관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여 한복 기업의 실질적 판로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판매관에서는 국내외 133개 한복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전통한복과 생활한복을 비롯해 원단, 장신구, 가방과 생활소품 등 다양한 한복 상품을 최대 8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사업홍보관에서는 일상 속 한복 입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직종별 업무 특성과 활동성을 고려해 개발한 ‘한복근무복’ 디자인을 소개한다. 교육관과 협력관에서는 전통복식 관련 5개 교육기관과 4개 기관이 추진한 한복 교육과 연구, 문화사업 등 다양한 성과를 볼 수 있다.

관람객 체험 행사도 진행한다. 과거의 한복을 현재의 감각으로 재해석해 선보이는 ‘한복상점 맵시잔치’, 광장시장과 연계한 ‘맞춤 한복 짓기’ 체험, ‘한복 풍류단’과 함께하는 시장 놀이 대결 등을 통해 남녀노소 누구나 한복의 멋과 문화를 친숙하게 경험할 수 있게 했다. 이외에도 행사 운영 전반의 신뢰성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상품의 품질, 제조 국적 등을 점검하는 ‘한복상점 암행어사단’을 운영해 관람객이 더욱 믿고 즐길 수 있는 행사 환경을 조성한다.

한복 착용 또는 사전 등록(~8. 12. 접수) 시 무료입장

‘2026 한복상점’의 입장료는 5천 원이지만, 한복을 착용하거나 8월 12일 (수)까지 사전 등록을 한 관람객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행사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한복상점 누리집(kcdf.or.kr/hanbokexpo)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향미 문화예술정책실장은 “한복은 우리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을 담고 있는 대표적인 문화 자산이자 세계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케이-컬처’의 중요한 콘텐츠”라며 “이번 한복상점이 한복을 더욱 가까이에서 경험하는 문화축제가 되고, 한복 기업에는 국내외 유통 관계자와 만나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붙임 1. ‘2026 한복상점’ 행사 개요
2. ‘2026 한복상점’ 포스터

담당 부서	문화예술정책실 전통문화과	책임자	과장	조재일 (044-203-2550)
		담당자	사무관	김이영 (044-203-2549)



□ 행사개요

- (행사명) 2026 한복상점 ‘한복을 짓는 시장’
- (일 시) '26. 8. 13.(목)~16.(금) 4일간
- (장 소)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
- (주최/주관) 문화체육관광부/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 (후 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주요내용) 판매관, 기획관, 사업홍보관, 교육관, 협력관, 체험관 등

□ 행사구성

- (한복 판매) 149개 한복업체 참여, 최대 80% 할인

<기획관> - ‘광장시장 한복주단시장’을 중심으로 한 전시와 시장 소재 업체 6곳의 판매 부스 - 금박, 자수, 바느질 공방을 구현한 전시	<판매관> - 국내외 133개 한복 업체가 참여하는 판매관
	
<사업홍보관, 교육관, 협력관> - 문체부, 공진원의 ‘한복 근무복’ 사업 홍보 - 전통 복식 관련 5개 교육 기관 및 4개 기관 참여	<체험관> - ‘광장시장 한복주단시장’ 맞춤 한복 짓기 체험, 시장놀이 대결 등
	

□ 문의

- (이메일/전화번호) hanbokexpo@kcdf.kr / 02-396-1631,1637
- (누리집/누리소통망) www.kcdf.or.kr/hanbokexpo (인스타그램) @hanbokexp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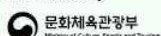
2026 HANBOK EXPO

한복상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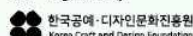
8.13. - 8.16. |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주최 Hosted by



주관 Organized by



후원 Sponsored by

